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과정*

The “Standing Alone” Process of Divorced Single Fathers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노정자**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부

교수 강기정***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

Plural Professor Rho, Jung Ja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Professor Kang Ki J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tanding alone” in divorced single fathers on the basis of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divorced single fathers. Data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in open coding, and 154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4 categori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ocess phenomenon of divorced single fathers' standing alone was “the restraint and chaos of pain.” This study could identify the consecutive process of four identified stages: marriage life's rupture, pain and chaos, deliberation and decision, and role adaption. In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to pass through the restraint of pain and embrace children and stand alone.” There were three types of standing alone: maintaining barely, enduring hopefully, and living initiatively. This study showed the necessity of social support and the basic data by type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standing alone. This study provided substantive knowledge generated through the voices of the persons concerned.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과 ‘남성의 이혼 그리고 홀로서기’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노정자 (chng8225@hanmail.net)

*** 교신저자: 강기정 (kkj@bu.ac.kr)

Key Words : 홀로서기(standing alone), 근거이론(grounded theory), (한부모 남성)single father. 이혼(divorce)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며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은 현대에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이혼과 한부모 가족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김혜경 외, 2006).

최근 우리나라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가구는 79%, 부자가구는 21%의 분포이며, 이혼한 부부 중 55.2%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2000년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모자가정의 증가율은 17.3%에 그치는 반면 부자가정의 증가율은 28%로 부자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다수의 한부모 남성들은 일과 자녀양육 및 가정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욕구 상실 및 낮은 자존감, 건강문제,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김형수, 2004). 증가추세에 있는 한부모 남성의 건강한 이혼과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여성이었고, 여성 한부모 가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경제적 빈곤문제와 결부된 여성 한부모 대상 연구가 이루어 졌다(장혜경, 송다영, 2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에 관한 연구는 이혼의 원인(김순옥·노명숙, 2000; 김민규, 2000), 이혼경험, 여성의 이혼과정, 이혼의 영향(유정이 4외, 2006; Joyce, A. A, 1999; 최정숙, 2004; 김수정·권신영, 2001; 신성자, 2000; 김수정, 2008; 이무영, 2003;

고정자, 2004), 이혼 후 적응의 연구, 이혼의 실태(권소영·옥선화, 2005; 옥선화·성미애, 2004), 양육결정과 이동지지, 자녀의 학교적응, 자녀양육(전명희, 2005; 박한샘·전명희, 2003; 정소희, 2006)) 등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한부모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이혼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과정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이혼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극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혼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주관적 의미를 가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혼현상의 이해는 당사자의 실제 경험세계의 다양성, 고유성, 능동성을 고려하여 파악함으로써 경험의 실제(최정숙, 2004 재인용)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잡한 현상 또는 어떤 현상 뒤에 놓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밝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로서 인간의 삶, 체험, 행동, 감정, 사고과정에 관한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질적 연구방법인 상징적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Strauss & Corbin, 2001). 특히 건강가정론적 관점에서 한부모 이혼 남성들의 이혼 및 홀로서기 과정에 관한 실체이론을 구축하고, 한부모 이혼 남성들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적절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에 관련한 선행연구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모(미혼부)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김혜경 외, 2006 재인용).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18세 미만의(취학중인 때는 2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별, 이혼, 유기, 미혼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는 자녀가 양친 중에 누구와 동거 하느냐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족과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의 형태가 있다(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부자가족은 한부모 남성 가족, 편부가족, 남성 한부모 가족, 싱글 대다가족 등으로 불려진다.

한부모 남성 가족은 일과 가정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와 애착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직장·자녀양육·가사병행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심리적 위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은민, 신상숙, 2008). 또한 한부모 남성 가족의 소비선택은 집 밖에서 음식이나 술, 담배에 돈을 더 쓰며 책에 대한 소비와 아이들의 교육비에는 돈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Kathleen & Ziol-Guest, 2009). 특히 자녀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을 경우 자녀의 방임수준이 심각하며(이애재·이성희, 2002) 더 나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70-80%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한부모 가족에서 48%가 발생하며 그중 부자가정이 34%로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 알코올 등 중독문제 14.6%로 부자가정에서 음주문제로 발생한 중독학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박수봉, 2006).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점차적으로 부자가정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부자가정의 부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권은희, 2009; 송현애, 2007). 권은희(2009)는 가족치료놀이를 통한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속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로부터의 재미있고 조화로운 반응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애(2007)는 한부모 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에서 부자가정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증진시키고자,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하기, 자녀를 이해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자녀교육을 위한 길잡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재혼 바로보기 등으로 구성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또한 최근까지도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부모에 대한 연구에서 과소 평가 되었으나 아버지들의 감정적 지원을 받고 사는 아이들은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Benjamin & Gorvine, 2009). 특히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지만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가깝지 않게 지내는 아이들보다 매우 높은 자존감을 보였으며, 적은 범죄율과 우울 증상이 낮았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Alam & Mindy, 2009).

한편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는 이혼 과정이 중요하다. Levinger(1976)는 이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감정적 반응이 시작된 과정이며, 심리,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혼합의, 아동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후의 역할 분담 등의 당면 과제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혼은 법률적 문제만이 아닌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파생시킨다(신성자, 2000). Guttman(1993)은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단계가 있는 과정이며 다

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이혼과정을 결심단계, 분리 단계, 투쟁단계, 정리단계 등으로 보았다. Bohannan(1970)는 이혼의 6가지 단계가 중복되거나 강도와 순서의 다양성을 주장했다. 여성의 이혼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이혼으로의 내몰림 단계, 분리의 혼돈단계, 일으킴 단계, 재정립 단계, 나아감 단계로 구분하여 여성이 이혼과정에서 경험하는 ‘분리의 혼돈에서 삶을 재구축해 나아가는’ 이혼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최정숙, 2004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김수정, 2008 재인용)이 대두되면서 이혼문제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시행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이혼 전 상담에 대한 법 조항을 두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서울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법원들이 시범적으로 1주일간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필요시 이혼 전 상담을 받도록 하여 효과성을 파악한 후, 법무부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즉흥적이며 감정에 치우친 이혼을 예방하고 자녀문제나 생활문제에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이혼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부모 이혼남성의 홀로서기 과정을 설명하는 실제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 and Corbin(2001)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

다.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상징적 의사소통에 의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견해로서, 인간은 자신과의 대화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명백하고 은밀한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Schreiber & Stern, 2003). 이에 한부모 남성의 “이혼 거론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홀로서기 경험과정은 어떠한가? 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실제 경험세계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경험의 실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홀로서기 과정의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잡한 현상 또는 어떤 현상 뒤에 놓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밝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인 상징적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Strauss & Corbin, 2001 재인용).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근거이론연구방법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접근 가능한 참여자 10명을 한 부모 지원기관, 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소 등의 소개를 통해 접촉하였다. 참여자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여자들과, 이혼 사유가 전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부모 이혼 남성으로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이혼경과 7년 이내의 남성 한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2009) 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이 남자의 경

우 44.5세인 것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연령을 50대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기준하여 18세 미만의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자료수집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후기로 진행되면서 핵심범주와 분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표집 하였다. 한 참여자로부터의 분석결과가 다음 참여자에게 나타나는지 질문을 반영, 비교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다음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각 참여자와의 면담결과와 차원적 수준이 다른 상황이나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면담 시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중 2010년 6월까지의 자료 수집을 위한 대면상담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보충질문과 확신을 위한 전화통화 및 분석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10명과의 면담이 있었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와 협의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로 선정하였고 면담은 상담실, 커피숍, 대상자의 회사 부근 휴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초기의 면담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거론하게 된 때부터 현재까지의 홀로서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로 시작 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청취한 뒤 컴퓨터에 직접 필사하였으며, 그 이후는 연구자가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필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 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으며, 3시간 인터뷰한 녹음의 경우 필사하기까지 12시간 정도 걸렸다.

1차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총 12명 이었으나 2

명은 중도 거부로 참여자선정에서 제외 하였고, 2차면담은 4명, 3차면담은 2명, 4차면담은 1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뒤 녹음한 내용을 기록하여 2, 3, 4차면담 시에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면담에서 확실치 않았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 하였고, 그 이후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 and Corbin (2001)의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여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5.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초기면담에서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처리, 면담내용 녹음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면담하는 동안에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게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부모 이혼 남성 10명으로 한부모 지원기관, 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를 통해 본 연구자와 연결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35에서 48세, 참여자의 학력은

〈표 1〉 연구 참여자 및 부양자녀의 기본사항

참여자	연 령	이혼경과 기간	부양 자녀	이혼 사유	학 령	직 업
1	35	6개월	3명	외도	고중퇴	직장인
2	37	6년	1명	외도	고졸	사업
3	45	2년	2명	성격차이(외도)	대졸	직장인
4	48	7년	2명	고부갈등	고졸	기술직
5	45	3년	2명	알코올 중독	고졸	직장인
6	40	1년	3명	외도	중졸	무직
7	37	3년	2명	경제적 어려움	고졸	직장인
8	48	7년	2명	고부갈등, 성격차이	고졸	직장인
9	48	3년	2명	경제적 어려움	고졸	직장인
10	47	3년	2명	간통죄	고졸	기술직

중졸 1명, 고 중퇴 1명, 고졸 7명, 대졸 1명이었다. 참여자의 이혼경과 기간은 6개월에서 7년 이다. 참여자의 자녀수는 1인 1명, 2인 7명, 3인 2명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3세부터 20세이다. 참여자의 직업은 기술직 2명, 직장인 6명, 개인사업 1명, 무직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경제 상태는 각종 지원을 포함하여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다.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Strauss and Corbin(2001)의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한부모 이혼 남성의 심층면접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과정으로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하는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표 2>과 같이 개방코딩에서는 154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3.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본 연구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따라 인과관계를 정립하고자 축 코딩을 하였다. 축 코딩에서 범주는 그 하위범주와 연결되어 현상에 대한 더 자세하고 완벽한 설명을 이루게 된다(Strauss and Corbin, 2001 재인용).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어긋난 결혼생활’과 ‘이혼 결정’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하였다.

(1) 어긋난 결혼생활

참여자 대부분은 문제를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회고하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참여자 3,4,8)과 가정경영기술부족(참여자5,6,7,9), 전통적 가부장적사고(참여자4,5,7,8,10)로 힘든 가운데서도 억지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어긋난 결혼생활을 경험하였다.

친구하고 호프집에 갔는데... 여자 2명이 있어서 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죠 ...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집에 갔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표 2〉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외로워서 성급히 결혼함 집나온 여자와 동정심에 동거하다 결혼함 같은 아픔 경험 때문에 동거하다 결혼함 결혼에 대한 환상(가정상, 여성상) 혼전 임신으로 결혼함 나이차이가 10년 이상인 사람과 결혼함	문제를 안고 결혼 시작	어긋난 결혼 생활	인과적 조건
시아머니와 감정의 골 깊어지며 갈등 심각해짐 서로에게 소홀하고 이해 못 해준다고 생각함 부부 사이에 마음이 전혀 전달 안 됨 채팅하다 가출로 연결됨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으로 확인함 부부 성관계 거부함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찾아오지 않는 아내	가족관계의 어려움		
수입 감소에도 지출이 늘어남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사용함 가정살림을 아내의 몫으로만 여김 가정이 깨질 위기에 안일한 대처	가정 경영 기술 부족		
아내보다 부모님 우선으로 생각함 돈을 벌어드주는 게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함 집안일은 여자의 일로 생각하는 5살 아이	전통적 가부장적 사고		
아내를 믿고 기다림(외도, 가출, 별거) 자녀에게 부모 이혼의 상처 주기 싫음 마음잡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	억지스런 결혼생활 유지		
무성의한 태도에 부모님도 동의함 알코올중독 며느리 받아들이지 못함 마음고생하며 사는 게 못마땅함 포기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권유 깨끗이 정리하고 새길 가리는 말 받아들여짐	결혼생활 유지 반대		
가출한 아내 기다리다 생활고도 힘들어짐 가출, 별거 빈도가 잦아지고 길어짐 간단한 이혼절차로 쉽게 이혼함 아이들과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 받음 아내 마음 확인 위해 목숨 걸고 자살시도 결혼생활 중 배다른 자식 알게 됨	결혼생활의 한계 봉착	이혼 결정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와 재혼 위해 이혼요구 남자 있으니 헤어지자는 아내 요구 농담으로 여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요구	아내가 이혼 원함		
퇴근 후 술로 방황함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받음	이혼의 고통	고통의 굴레와 혼돈	현상

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감정을 억압하며 버티가기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원인 찾아 나선 부모 이혼과정을 경험한 자녀들의 아픔과 부적응			
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감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감 누군가가 응징해주길 바랍	현실 상황에 대한 체념		
엄마사랑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움 혼자라는 심리적 외로움의 고통 전 부인에 대한 분노와 연민의 마음	벗어나고 싶은 고통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이혼한 엄마 죽었다고 말함 이혼한 엄마를 돈 벌러 갔다고 말함	자녀에게 엄마 존재 숨김		
스트레스로 병이 찾아옴 정신과 치료받으며 우울증 약 먹음 고된 생활로 몸 상태 악화됨	신체화 증상		
명절 때 고향에서 애 엄마 찾으면 괴로움 아이들만 데리고 사는 남자로 소문남 남들의 시선 의식할 때 심리적 부담 큼 부담 주는 것 같아 인간관계 단절함	위축된 심리		
여자아이 키우기 어려움 반찬 만드는 어려움과 자녀 영양 불균형 자녀양육에 의한 직장 부적응 남자를 포기하고 아빠로 살기	다양한 역할 과중의 고통		
희망 없는 미래가 막막함 불안정한 직장에 대한 갈등 자녀들 미래 위해 투자하지 못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아이들 시설 보내려 함 직장 때문에 작은놈 억지로 여동생에게 보냄 가족에게 자녀 위탁도 부담스러운 짐	자녀양육의 한계		
주제를 알기에 성적욕구는 사치라 생각함 성적 욕구를 느낄 만큼 삶의 여유 없음 여자가 그리울 때 야동을 봄 등산을 가거나 잊기 위해 술 마심 참기 힘들 땐 자위행위 함	성생활 억제		
수급자 탈락되면 아이들 교육이 문제됨 자녀돌보며 직장일 가능한 직업 찾다보니 생계비적 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먹이고 입힐 여유 없음 사업실패로 집도 없이 가족이 헤어져 살게 됨 가족과 함께 문화 활동도 못함	생활의 타격이 큼	경제적 능력	맥락적 조건

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미래위해 자녀교육에 투자할 여력 없음			
일정한 수입 있으니까 사는데 지장 없음 자녀들이 크다보니 직장일 충실해짐	생활의 타격이 덜함		
남자 혼자 애 키운다고 여자가 쉽게 성적 접근 측근한 시선에 마음이 위축됨 힘들어도 장애자 신청 안 함 가족에게 죄인 같아 고향에 못 감	타인 눈총 의식함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이혼도 내 선택이고 삶이라고 생각함 참관수업도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함 과거 잊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함	타인의식에서 자유로움		
전 부인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음 전 부인을 이해하며 잘 살길 바람 생활고로 전 부인 생각할 여유 없음	전 부인과의 감정	전 부인에 대한 인식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살기로 마음먹음 자식은 삶의 희망 자녀에게 좋은 추억 주고 싶어 눈높이 높임함 자녀위한 건강 식단 챙기며 요리함	자녀위해 마음 다잡음	마음중심 잡음	
생각을 바꾸며 노력하니 애들이 달라졌다고 함 건강위해 운동에 신경 씀 식사를 꼭 챙겨먹음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표현함	생활 패턴 바꿈		
설교 말씀 듣고 전 부인에 대한 미움이 누그러짐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 바뀜 교회서 조건 없이 자녀 돌봐줌 지금은 신앙이 제 인생의 전부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어머니 부르며 위로받기 원함 교회생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람 교회서 딱지 부친 집 문제 해결해 줌	종교적 지지		중재적 조건
자녀들 보면 편안해 지고 힘이 됨 어머니가 정신적 지주 가사도우미가 아이 돌봄과 식사 챙겨주니 마음 편함 봉사단체의 학습·문화 활동 지원이 힘이 됨	심리·정서적 지지	지지 체계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집안일 지원 가사 도우미가 주5일간 4시간씩 아이 돌봄 지원 마트사모님이 아이들 봐준 덕에 늦도록 배달일 함 어린이집원장이 주말에 아이 돌봄 지원	가사와 양육지원		
이웃의 계절별 옷 지원 아이들 병원비 도움 받음 정부의 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함	물적 지원		

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가족의 관심을 기대하기 어려움 밑반찬서비스 받기 여의치 않음 가사도우미의 요리지원서비스 부족	서비스 한계		
자녀와 생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기 벼룩시장 광고 보고 자녀 의류지원 찾아 나섬 애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	도움 찾아 나서기	생계 찾아 나서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도 마련해주려 노력함 쪽방 살이 어려움 이겨나가기 주거 문제 해결 방법 찾아 나서기 주거문제해결로 각자 생활할 여유 공간 생김	환경헤쳐 나가기	홀로서기를 위 해 시도 하기	
자녀들 눈높이 높이로 친밀한 정서 교류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 주는 아빠로 살고자 함 아이 상처 치료위해 프로그램 참여시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니 애들 마음 헤아려짐	부성애로 자녀양육 에 최선 다함		
서로의 처지 이해할 한부모 여성과 재혼 원함 술 먹지 않는 여성과 재혼 원함 가정적인 여성과 재혼 원함 공감대 형성되는 연상의 여상이 편함 자녀들에게 엄마 사랑 주기 위해 원함	행복한 가정위해 재 혼 생각함	새로운 가정 희 망하기	
또 실패할까 두려움 한 번 잘못된 상처가 너무 큼 환경을 생각하면 곤란함 주말부부 해야 하는 직장 생각하면 곤란함	재혼에 대한 두려움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재혼할 수 있음 애 딸린 남자는 생활적으로 안정 돼야함 재혼녀 아이까지 책임지려니 부담스러움	재혼조건의 두려움		
하루살이처럼 의욕 없이 살아감 돈보다 성적 외로움이 더 큰 소심한 남자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죽으면 땡이라 생각함	생계유지에 놀림	근근이 유지하기	결과
더 나은 창업 향해 나아가기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 회복되어감 자식이 없으면 이 정도로 힘들지 않음 더 어려운 사람이 도움받길 원하는 강한 독립심 주거 문제가 점차 나아지길 희망함	살아가는 힘	희망으로 버텨가기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감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내방식대로 살게 됨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	원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김	주도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집에 안 가느냐고 물었다니 집을 나와서 들어갈 수 없
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 나온 여자인 거죠... 갈 곳
도 없고 외로운 여자인 것 같아서 동거하며 살다가 애

낳고 결혼신고 한 거죠 (참여자 5)

(2) 이혼결정

참여자들의 가족, 이웃들은 억지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알고 결혼생활을 반대한다(참여자3,5,8). 생활고와 장기적 가출, 외도(참여자5,6,7) 등으로 결혼생활은 한계를 맞이하는데 아내조차도 이혼을 요구하자(참여자2,3,7,9) 참여자들은 점차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아내는 식당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화를 못 이기고 자해를 세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 사람이 다혈질이거든요 소주병을 깨서 팔목을 그었어요 너무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자식도 보이지 않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면 살 것 같다고 하며...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참여자 9)

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고통의 굴레와 혼돈’으로 나타났다. 이혼 현상은 참여자들의 “현실적 고통의 굴레와 심리적 혼돈”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과정을 경험한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의 아픔과 현실 부적응의 모습이 표출 되었다. 현상에 대한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처음엔 저한테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닥치게 되자 너무 힘들었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애들을 키워 본 일도 없고 애들 목욕 문제 하루 세 끼 문제 등 너무나 힘들고 지친 거죠 그런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어요 더구나 남들의 시선이 큰 심리적 부담이었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의식도 되고 직장 동료들의 눈도 의식되고 모든 면에서 힘들었어요 (참여자 3)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전 부인에 대한 인식’이 현상인 ‘고통의 굴레와 혼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1) 경제적 능력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타격이 많았으며(참여자1,4,5,6,7) 일부의 참여자들은 적응이 원활(참여자8,9,10)하였는데 경제적 능력의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트에서 계속 일을 하면 생계비가 어렵고 그렇다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애가 어려서 쉽게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애들만 돌보자니 굶게 생겼고 애들을 포기하자니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민이 참 많았죠 (참여자 5)

(2)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마음이 위축(참여자1,5,6,7)되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하고, 일부의 참여자의 경우는 이혼도 내 삶이고 선택이라는 생각(참여자3,4,10)으로 현실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며, 타인의 의식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의지가 강했다.

저 남자는 아이들만 데리고 사는 남자다. 항상 아이들과만 같이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금방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아무래도 싫어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무슨 이윤지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궁금해 하고 입방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깐 그런 거를 인식하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선이 오면 괜히 뭐랄까... 마음이 위축 돼요.....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조금 아무래

도 사람들이 측은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건 숨길 수 없는 남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참여자 7)

(3) 전 부인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전 부인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기도 했지만(참여자3,4,8,9,10) 일부의 참여자는 전 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참여자 2,6)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전 부인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참여자도 있었다.

애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한 적도 있는 거죠 또 너무 힘들게 산다는 자체도 제가 또 미안한 감도 생기게 될 테고 뭐 부부간의 그런 건 끊어졌지만 부부가 아니어도 동창이고 친구거든요 뭐 건강하게 잘살아야 애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테고요(참여자3)

두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생활하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쓸 수도 없었죠 (참여자 5)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기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중심잡음’과 ‘지지체계’가 ‘고통의 굴레와 혼돈’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중재적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1) 마음중심잡음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빠로 살기로 마음중심을 잡으려 노력한다.

가장 힘들었을 때 주위 분들이 시설에 아이들을 맡

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했죠 너희들 시설에 가면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는데 시설에 가면 어떻게겠느냐고... 아들이 울면서 맞난 것 안 먹어도 좋으니 아빠하고 같이만 살게 해달라고 아들, 딸이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 마음을 굳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과 같이 살아야 하겠다고... (참여자 6)

(2) 지지체계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위해 마음중심을 잡고 살게 되었으며 교회, 가족, 이웃 등의 지지체계(참여자2,5,6,10)를 통해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받고 있었다.

저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힘이 많이 돼요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1년 전에 혼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복수한다고 찾아 나서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는 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께에 힘을 주고 다녔는지... 여러 사람들 힘들게 했어요 제가 죄가 많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많이 울어요 (참여자 6)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으로 ‘생계 찾아 나서기’, ‘새로운 가정 희망하기’, ‘홀로서기를 위해 시도하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1) 생계 찾아 나서기

참여자들은 자녀들과의 생계유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거나(참여자1,2,4,5,6) 애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행동 하고 있었다.

퇴직금을 다 쓰고 돈이 떨어지게 되자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했죠 애는 키워야 되고 시간은 잘 맞지 않고 해서 목욕탕 때밀이를 배워서 약 6개월간 때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짬질방이 생기면서 사장님께 저녁 6시 30분까지만 하는 걸로 합의해서 짬질방으로 옮겨 거기서 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2개월 후 부도가 나서 그만두게 됐어요 직장을 잃고 몇 달 쉬다가 용역업체 청소를 하게 됐는데... (참여자 2)

(2) 홀로서기를 위해 시도하기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기간이 경과되면서 자녀와 함께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자립적인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주거 환경과 자녀를 위한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는 힘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부성에였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잘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실하게 잘 성장해가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하지 않고 졸업 때까지 계속 살려고 해요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여자 5)

(3) 새로운 가정 희망하기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행복한 가정 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참여자 모두 재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재혼을 위한 아내상은 전부인과 반대되는 여성을 선호 하고 있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한부모 여성과 재혼 원함(참여자5), 술 먹지 않는 여성과 재혼 원함(참여자5), 가정적인 여성과 재혼 원함(참여자3), 공감대 형성되는 연상의 여성이 편함(참여자2), 자녀에게 엄마 사랑을 주기 위해 재혼(참여자3,5) 등을 원했다.

저도 한부모이고 상대방 여자도 한부모면 서로가 자기들 입장을 알죠 자기도 혼자 키워보니까 이렇이

러한 게 문제구나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양육을 시켜야 되고... 서로의 환경과 처지를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만나서 재혼했으면 하죠 (참여자 7)

6) 결 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중심현상인 ‘고통의 굴레와 혼돈’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참여자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근근이 유지하기’, ‘희망으로 버티가기’, ‘주도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1) 근근이 유지하기

참여자들은(참여자2,6)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계획이 뭉개졌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2는 외도로 갑자기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해 원망과 복수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근근이 살고 있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지금은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상실되었어 청소용역 업무로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일이 막 들어와도 하기 싫고... 그래 일이 힘들더라도 가서 일거리 좀 달라고 돌아다니며 영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아무리 힘든 일도 서로서로 웃으면서 비벼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몇 달째 청소해 달라고 연락이 와도 의욕이 떨어지게 되자 일할 힘이 없는 거지. 어떤 곳은 바쁘다고 했더니 아예 연락도 안 오는 경우도 있구. 가끔가다 연락 오면 귀찮고 바쁘게 죄송해요 라며 둘러대는 경우도 있지 (참여자 2)

(2) 희망으로 버티가기

참여자들은(참여자1,5,7) 시간이 경과 하면서 희망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혼의 상처가 회복되어 가며 자신감

〈표 3〉 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인과적조건	어긋난 결혼생활 이혼 결정	인식 인식	높다 ---- 자의 ----	낮다 타의
현상	고통의 굴레와 혼돈	정도 기간	높다 ---- 길다 ----	낮다 짧다
맥락적조건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전 부인에 대한 인식	정도 의식여부 감정	많다 ---- 의식 ---- 좋다 ----	적다 비의식 좋다
중재적조건	마음중심 잡음 지지체계	정도 정도	높다 ---- 많다 ----	낮다 적다
작용/ 상호작용전략	생계 찾아 나서기 홀로서기를 위해 시도하기 새로운 가정 희망하기	정도 고용형태 정도 정도	높다 ---- 안정 ---- 높다 ---- 높다 ----	낮다 안정 높다 높다
결과	근근이 유지하기 희망으로 버티가기 주도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정도 정도 정도	높다 ---- 높다 ---- 높다 ----	낮다 낮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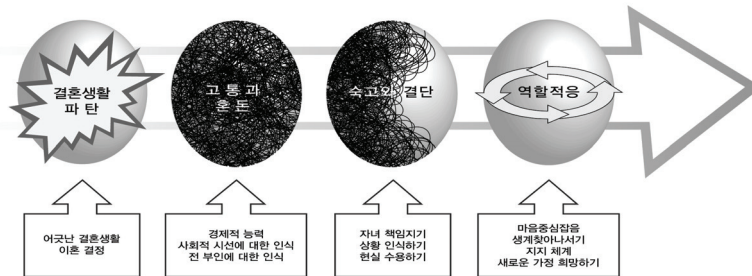
을 갖게 되었고, 창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을 향한 강한 책임감과 독립심으로 희망을 갖고 버티며 살아 나가고 있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고생도 많이 안 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안 계셔도 애들이 착하고 잘 따라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들에게 잘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이들도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실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참여자 6)

(3) 주도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참여자들은(참여자3,4,8,9,10) 이혼기간이 경과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재를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그림 1〉 이혼을 경험한 한 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

고민하며 원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마음은 필까... 견딜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 알려고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내적 치유도 다녀오고 도서관에서 마음에 관한 책을 다 읽어가며 사람의 마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죠 어린애같이 행동하던 애들 엄마 마음도... 맨 날 지적만 했던 제 행동이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라는 판단이 생기면서 애들 엄마에 대해 조금씩 편해졌어요 (참여자 10)

4.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과정(process)과 구조(struct-ure)의 상호작용으로, 한 현상과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Strauss and Corbin, 2001 재인용). 본 연구의 각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1) 결혼생활의 파탄 단계

‘결혼생활의 파탄 단계’는 어긋난 결혼생활과정을 거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내의 반복된 가출과 외도를 경험하지만(참여자1,2,4,6,10) 자녀들을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며 ‘결혼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2) 고통과 혼돈 단계

‘고통과 혼돈 단계’는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들은(참여자1,2,5,6,7)자녀양육과 직장 일을 병행하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등의 역할과중으로 심리적인 방황을 할 여유도 없이 당장 시급한 생계문제와 자녀양육의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고민 끝에 생계유지를 위해 어

린 자녀를 일시적으로 가족들에게 위탁하지만(참여자2,7) 가족들의 부담감과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 엄마와의 분리로 소아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엄마에 대한 자녀들의 불안증세가 여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어린이집 여자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려워(참여자6)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적 고통이 심리적 혼돈을 가져오는 순환과정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여자들은 자녀를 시설에 위탁하려는 고민을 하게 된다.

3) 속고와 결단 단계

‘속고와 결단 단계’는 고통과 혼돈단계에서 다양한 역할과 버거운 생활고로 한계상황에 이르면서 속고와 결단을 통해 마음중심을 잡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 속고와 결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과 자녀에 대해 책임지기로 결단하고, 참여자의 현실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4) 역할 적응 단계

‘역할적응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도 병행하고,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한부모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손길을 찾기도 한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옷을 정리하는 일이나 반찬 만드는 일, 여자아이의 머리묶어주기, 스타킹 신기고 치마 입히는 일 등 다양하고 과중한 역할에 대해 부담감이 많았다. 특히, 여자아이가 생리를 하거나, 가슴이 나와 속옷을 사줘야 하는 등의 일을 당황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이웃, 공식·비공식적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찾아 나서며 점차적으로 다양한 역할에 적응하게 된다.

5. 선택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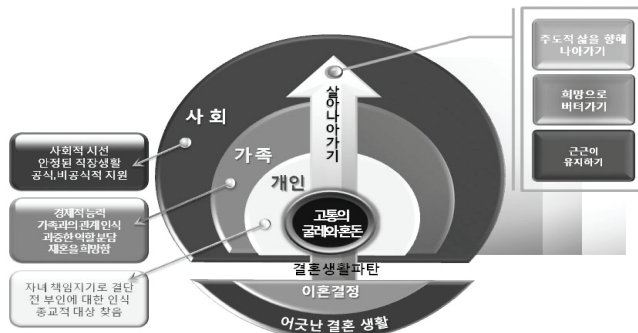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핵심범주는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 결과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에 대한 상처를 자식에게 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 애착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파트타임을 통해 부성애로 자녀를 보듬으려 한다. 하지만 수입이 없어지면서 빈곤이 찾아오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 헤매지만 어린 자녀 양육으로 한시적인 일이나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간다(참여자 2,6). 문제를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참여자들은 (참여자2,4,5,6,7)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는 아내의 외도나 사업실패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절망감과 이기적인 아내의 행동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해 엷히고설킨 실타래처럼 현실적 고통과 심리적 혼돈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양한 역할과 과중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참여자의 경우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을 시설에 위탁

하고자 하였으나 ‘맛있는 것 안 먹어도 좋으니 아빠랑 같이 살게 해 달라’는 어린 자녀들의 눈물어린 간청을 통해 자녀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 중심을 잡고 갈등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면서 안정된 삶을 향해 희망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짐이 되었던 자녀가 이제는 ‘살아가는 힘이요, 희망’이라며 자녀를 보듬고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6.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의 상황 모형

상황 모형은 연구 중인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어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Strauss & Corbin, 2001 재인용)이다.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에 대한 상황 모형은 <그림 2> 와 같다. 한부모 이혼 남성들이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 하는 과정은 개인 수준에서부터 가족, 사회 수준까지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해 나가며, 그 결과 근근이 유지하기, 희망으로 버티가기, 주도적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에 대한 상황모형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과 실천부문에서 합의 하는 바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의 중심현상은 ‘고통의 굴레와 혼돈’이었는데 이는 한부모 남성들이 고통의 굴레와 혼돈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녀양육과 생계유지, 가정생활의 과중한 역할로 현실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녀를 가족에게 잠시 위탁하지만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됨으로 자녀를 방임하다가 시설에 위탁하려고 하는 심리적 고통과 혼돈을 경험한다(참여자4,6,7). 이는 홀로서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이혼 한부모 남성들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사역할, 자녀 돌봄,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한부모 이혼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재혼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실패할까봐 두려움, 재혼 조건이 불안정 하다는 두려움이 많았다. 한부모 이혼 남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녀와 함께 재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과정은 ‘결혼생활과탄 단계’, ‘고통과 혼돈 단계’, ‘숙고와 결단 단계’, ‘역할적응 단계’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지원이라는 건강가정론적 관점으로 볼 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남성들과 한부모 이혼 남성의 이혼과정과 이혼 후 홀로서기과정을 이해할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접근을 활용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여 생성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부모 이혼 남성의 이혼과정 경험을 구조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홀로서기 경험과정을 파악하였다. 이에,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개념들을 밝힘으로 핵심범주인 “고통의 굴레를 지나 자녀를 보듬고 홀로서기”의 실제이론을 생성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부모 남성도 모성에 못지않게 부성애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사항은 한부모 이혼 남성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족복지 실천현장에서 이혼과정에 있는 남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방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과정을 통해 한부모 형태가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부 등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경험을 연구하여 한부모 남성의 이혼 경험과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혼 사유가 전 부인에게 있다고 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이혼 사유가 참여자에게 있다고 하는 한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중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남성이었다. 이에 경제적 능력의 정도가 많은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 한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정자(2004). 한부모 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논문집. 29호.
- 2) 권은희(2009). 부자가정의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권소영·옥선화(2005). 20, 30대 이혼남녀의 이혼 후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3(3), 1-21.
- 4) 김민규(2000). 이혼원인에 관한 논의와 실태. 가족법연구, 14, 1-38.
- 5) 김수정(2008).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를 위한 미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신학파목회, 30, 327-355.
- 6) 김수정·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7) 김순옥·노명숙(2000). 판례에 나타난 이혼원인 분석. 생활 과학, 3, 1-24.
- 8) 김혜경 외 6인(2006). 가족복지론. 경기:공동체.
- 9) 김형수(2004). 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대책. 사회과학연구, 25, 91-111.
- 10) 박수봉(2006). 부자가정에서 음주문제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개입.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 사례연구.
- 11) 박한샘·전명희(2003).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관련상담분석사이버상담을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1, 137-151.
- 12) 신성자(2000).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학재간 팀 이혼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8, 31-58.
- 13) 송현애(2007). “한부모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3.
- 14) 이애재·이성희(2002). 부자가정 자녀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9(2), 255-276.
- 15) 이무영(2003). 이혼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17) 옥선화·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41-142.
- 18) 유정이 외 4인(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8, 157-176.
- 19) 장혜경·송다영(2001).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향상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05.
- 20) 전명희(2005). 자녀양육협의를 위한 중재서비스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3(1), 17-30.
- 21) 정소희(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사회복지연구회, 30, 185-213.
- 22) 정혜정의 3인(2009). 가족과젠더. 서울: 신정.
- 23) 최정숙(2004). 여성의이혼과정에관한근거이론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통계청 (2009). 인구통계연보, 통계청.
- 25)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서울:청목출판사.
- 26) 현은민·신상숙 (2008), 부자가정의 부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7(2), 1-21.
- 27) Strauss, A. and Corbin, J.(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29) Schreiber, R. S. and Stern, P. N.(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
- 29) Alam Booth, Mindy E. Scott, and Valarieking (2000). Father Residence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re Youth Always Better off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 31(5), 585-605.
- 30) Bohannon, P. (1970). The Six situations of Divorce. In Divorce and After. Ed. by

- Bohannon, Garden City, N.Y double day.
- 31) Benjamin J. Gorvine.(2009). Head Start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 31(1), 90-112.
- 32) Guttman, J.(1993). Divorce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Hawthorn Press, 33-81.
- 33) Joyce A. A.(1999). Rethinking relationships Between Divorces Mothers and Their Children: Capitalizing on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8, 109-119.
- 34) Kathleen, M. Ziol-Guest.,(2009). A single Father's Shopping Bag; Purchasing Decisions in Single-Fath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 30(5), 605-622.
- 35) Levinger,G.(1976). Sources of marital dissatisfaction among applicants for divor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6, 803-807.

- 투 고 일 : 2012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24일